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예레미야 · 사도행전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57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2

February 20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중직자	3 7교구	4 6교구	5 8교구	6 11교구	7 교역자
8 전교인	9 중직자	10 9교구	11 4교구	12 10교구	13 12교구	14 교역자
15 전교인	16 중직자	17 17교구	18 1교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19 2교구	20 3교구	21 교역자
22 전교인 제1차 학습·세례식	23 중직자	24 14교구	25 5교구	26 18교구	27 13교구	28 교역자

Memo

교회 주요 일정

2월 18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2월 22일

제1차 학습·세례식

2월, 개인 전도 계획

2015 March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te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남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동안 매일 성경을 1장씩 묵상하던 방식이 지금은 17절 내외로 정한 본문을 지면에 함께 실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충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❶ 사순절기(2.18~4.4)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❷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❸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❹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❺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❻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❼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❽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❾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❿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1기 입학자 응시자를 위한 특별강좌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㉒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㉓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나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㉕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㉖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㉗ 거짓되게 하였나니 ㉘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㉙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㉚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㉛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법을 거짓되게

이 악한 민족의 남아 있는 자(1~3절)

예레미야 8장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로 시작됩니다(1절). 여기서 그 때는 7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그 때를 말하는 것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 받게 될 때를 가리킵니다(렐 7:34 참고). 본문은 그 때의 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죽은 자의 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1~2절), 죽지 않은 자들도 스스로 죽음을 간구하는 참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4~12절)

하나님은 거짓을 고집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죽을 줄도 모르고 전쟁터를 향해 달리는 말'에 비유하여 설명하시며, 돌아올 때를 아는 새들과는 달리 유다 백성은 전혀 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4~7절).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거짓 교훈을 전하였습니다(8절). 이와 같이 남 유다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10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1~3절)

Q. 남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율법은 왜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8절)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¹³³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¹³⁴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¹³⁵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¹³⁶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¹³⁷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¹³⁸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¹³⁹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¹⁴⁰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¹⁴¹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¹⁴²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¹⁴³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1) 그들을 진멸할 자를 내가 이미 정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13~17절)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13절). 그들은 진멸 당할 그 때에 가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그 때에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했던 거짓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프다(18~22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18절). “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21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소리를 들으면서 슬퍼했습니다(시 74:1~7 참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19절)라고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가 이 슬프고 놀라운 일의 근본 원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신자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Q.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의 것으로는 치료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녹이고 연단하리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¹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²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³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⁵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⁶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⁷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⁸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⁹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¹⁰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¹¹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¹²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¹³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¹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처치할꼬(1~9절)

여호와께서 죄를 책망하심은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며, 심판을 경고하심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7절). 완전히 녹이고 연단하여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렘 18:4)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10~16절)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10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 수 없게 됩니다(11절).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1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를 따르던 자들을 땅이 삼키고 겨우 도망한 250명을 제단 불이 살라 버렸듯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진멸하십니다(민 16장 참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14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신자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Q.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을 어기고 버린 자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버린 자가 아닙니까?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¹¹⁷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¹¹⁸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¹¹⁹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¹²⁰부녀들이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¹²¹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 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¹²²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¹²³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¹²⁴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¹²⁵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¹²⁶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¹²⁷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17~22절)

하나님은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22절). 본문에는 ‘곡, 애곡, 눈물, 통곡, 슬픈 노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딸 백성’이라고 사랑스레 부르시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이런 끔찍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날이 이르면(23~26절)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2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는 지혜를 자랑했고, 용사는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부자는 돈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자랑했고,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표가 있기 때문에 격정이 없다면서 자랑했습니다(렘 7:4 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이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을 자랑했던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25절).

Q. 17~20절은 차라리 애곡하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 여러 나라의 3)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 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0)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16)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7)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 풍속은 2) 조롱함을 받을 것인즉

본문 예레미야 10:1~16 찬송가 298장

이스라엘 집이여(1~5절)

본 장은 참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1절).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풍습인 우상은 헛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화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3~5절).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6~16절)

예레미야는 우상의 헛됨을 말한 후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6절).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어서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으며(8절), 거짓된 것으로서(14절), 곧 멸망할 것(15절)이지만,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10절)라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이 땅에 속한 '여러 나라의 길' (2절)과 '여러 나라의 풍습' (3절)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Q. '아름의 분깃' 이고 '그 기업의 지파' 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¹⁷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¹⁸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¹⁹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²⁰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²¹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²²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²³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²⁴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 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²⁵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본문 예레미야 10:17~25 찬송가 399장

네 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17~22절)

여호와께서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17~18절).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장막은 무너졌고, 여호와와 모든 줄은 끊어졌으며, 자녀들도 모두 떠나 여호와와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20절).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2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십시오(23~25절)

여호와의 징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징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4절).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 또한 녹이고 연단(렘 9:7)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히 12:11 참고).

Q. “네 집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17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 23절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는 고백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 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 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 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 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으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익 있는 때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뭇을 짓밟아서 내가 기 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 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 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벚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와 같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 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 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져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 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 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 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본문 예레미야 12:1~17 찬송가 269장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1~6절)

예레미야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며 고난당함을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와 같이 악인들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4절)라고 말하며,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심판이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오직 ‘형통함과 평안함’(1절)만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고 전멸하였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시 73편 참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7~17절)

우리는 예레미야 12~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하나님은 자기 집을 버리며 소유를 내어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 십니다(7절). 여호와께서 ‘내 집’을 버리시고, ‘내 소유’를 내 던지셨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14절). 그것은 그들을 돌이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6절)

Q.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자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7절)

멸하리라

¹¹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이지 말라 하시기로 ¹²내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¹³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¹⁴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¹⁵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¹⁶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¹⁷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¹⁸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¹⁹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²⁰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²¹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²²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찰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라 ²³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²⁴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²⁵너희는 들을지이다, 귀를 기울일지이다, 교만하지 말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²⁶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²⁷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²⁸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와 양 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1~11절)

본 장은 베 띠와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어찌하여 유다에 임했던 영광이 저주로 변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 띠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습니다(11절). 그러나 그토록 영화롭던 베 띠는 결국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12~17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12절).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원래 포도주는 병이 차도록 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계 19:15 참고).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을 썩게 하십니다(9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¹³⁹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¹⁴⁰네 겹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¹⁴¹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 떼,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¹⁴²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¹⁴³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¹⁴⁴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¹⁴⁵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같이 홀으리로다 ¹⁴⁶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¹⁴⁷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¹⁴⁸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본문 예레미야 13:18~27 찬송가 75장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18~21절)

하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신 경고는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왕하 24:15). 또한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20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21절)라는 말씀도 바벨론의 침공과 느부갓네살의 통치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네 죄악이 크므로(22~27절)

하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27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한 광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들은 오직 중보자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힘의 질서에 의해 통치되는 이 땅과 은혜에 의해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Q.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벼는 산 위에 서서 송냥이 같이 혈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 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 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본문 예레미야 14:1~22 찬송가 455장

가뭄(1~9절)

본문은 가뭄으로 인해 온 나라가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이 부르짖고(2절), 귀인들도 물을 얻지 못하며(3절), 농부들이 경작하지 못하고(4절), 들짐승들이 헐떡이는(6절)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7절). 이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길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10~22절)

예레미야의 3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1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그들의 죄악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대하 36:16 참고). 이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곤비하고 애통하여 부르짖으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물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Q.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별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머니를 처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라도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나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건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못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못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 그들로 세계 열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2) 철이 어찌 능히 북방의 철과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1~9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렘 14:19~22)에 대하여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며 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1절). 여호와께서는 14~15장에 걸쳐 예레미야의 탄원을 세 차례(렘 14:10~12, 14~18; 15:1~4)나 거절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와와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거절함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대하 36:16~17 참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10~21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간구가 여호와께 거절당하자 낙심하여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10절, 욥 3:1~11 참고). 이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1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재앙이로다”(10절)라고 말하며 자신이 화를 당한 자라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11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주님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 됨을 고백해 보십시오(2절).

Q. 여호와께서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도 저주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बे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물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음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겠다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나(1~13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2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때와 참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주입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동일한 환난과 참상을 말씀하셨습니다(눅 19:41~44).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이곳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14~21절)

여호와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며 ‘한 날’을 가리키십니다(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15절, 사 48:6 참조). 그 날에는 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이방은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라고 회개할 것입니다(19~20절).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21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1~9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참상을 보며 신자로서 무엇을 느끼니까?

Q. 당신은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날’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²⁷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²⁸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²⁹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³⁰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³¹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³²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³³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³⁴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³⁵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³⁶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라

³⁷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³⁸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³⁹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⁴⁰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27~36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모함하며 성전에 있던 무리를 선동했습니다(27절).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쪽 뜰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 바깥 뜰(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쪽 마당까지 들어오는 일을 엄격히 제언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은 무리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허락하라(37~40절)

흥분한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바울은 군대의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백성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고, 천부장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없애라' 라고 쉬지 않고 떠드는 무리를 향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Q.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29절)

Q. 자신이 처한 위기가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적이 있다면 그 때의 일을 나누어 보십시오.

증인이 되리라

“부형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 또는 쳐다보라 2) 헬, 또는 침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1~16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 회중 앞에서 자신이 그들 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이 유대교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또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모범적 유대인 아나니아의 말을 빌려, 하나님이 자신을 회심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17~21절)

회심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전력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18절)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21절)라는 것이었습니다.

Q.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Q.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시민권을 얻었노라

²²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²³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²⁴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²⁵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²⁶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²⁷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²⁸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²⁹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22~24절)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론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청중은 바울의 말을 끊고 그를 죽이자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3절에 묘사된 유대인들의 행동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들의 단호한 결의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행 7:58 참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고문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제외한 노예나 외국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채찍질하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면서부터(25~29절)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로마에 뛰어난 공을 세우면 그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 다. 둘째,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 다. 셋째,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바울이 자신보다 사회적 신분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부장이 모르는 시민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이었습니다.

Q.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Q.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 전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담대하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되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록하였으되(22:30~23:5)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유대의 공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로 모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여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대제사장과는 달리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행 23:5).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 곁에 서서(6~11절)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심문을 받는다고 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이 바울에게 혐의가 없다고 하자 이에 사두개인이 반발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분쟁은 커지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바울을 무리 속에서 빼내서 영내로 다시 데려갔습니다(10절).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Q. 교회에서 받은 섬김의 직분을 자기 유익에 따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Q.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결박할 사유가 없음

¹²³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¹²⁴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¹²⁵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¹²⁶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¹²⁷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¹²⁸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¹²⁹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¹³⁰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¹³¹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¹³²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¹³³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¹³⁴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세 삼 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¹³⁵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¹³⁶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¹³⁷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¹³⁸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¹³⁹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¹⁴⁰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¹⁴¹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¹⁴²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¹⁴³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¹⁴⁴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¹⁴⁵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제 사람이냐 물어 질러기가 사람인 줄 알고 ¹⁴⁶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룻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에게 알린지라(12~22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며 동맹한 자들이 사십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을 통해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어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23~35절)

천부장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후,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눅 21:12~13)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바울이 로마 정부의 지원으로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Q. 내게 알려진 일에 충성함으로 주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Q.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¹¹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¹²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¹³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¹⁴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¹⁵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¹⁶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¹⁷(6하 반-8상 반 없음) ¹⁸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¹⁹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²⁰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²¹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²²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²³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²⁴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²⁵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²⁶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²⁷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²⁸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²⁹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³⁰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³¹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1) 어떤 사본에는 24:6하 반절-8상 반절에 다음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8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더둘로가 고발하여(1~9절)

바울이 호송된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가리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확실하게 고소하기 위해 더둘로라는 변호사(수사학을 익힌 대변인)까지 고용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의 언변을 이용해 바울을 졸지에 국가 권력에 맞서는 선동가로, 이단 종파의 괴수로, 성전 모독자로 몰아 세웠습니다(5~6절).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눅 23:2).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낼 수 없었듯이, 더둘로 역시 화려한 수사를 구사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변명하나이다(10~21절)

더둘로의 발언이 끝나자 바울은 그 고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모두 논박한 뒤에 바울은 공회에서 벌어진 심문의 결과는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고백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시간을 자신의 변호에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결코 이단이 아니라, 바른 신앙임을 전했습니다.

Q.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Q. 성도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행동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¹³³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¹³⁴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¹³⁵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¹³⁶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¹³⁷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¹³⁸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¹³⁹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¹⁴⁰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¹⁴¹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¹⁴²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¹⁴³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¹⁴⁴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¹⁴⁵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그러나 그가 ¹⁴⁶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¹⁴⁷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¹⁴⁸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립바 왕(13~22절)

아그립바 가문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그분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그립바 왕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세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 2세의 큰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으면서 그분을 직접 대면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립바 또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게 되었지만,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죄 사함과 영생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23~27절)

바울은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23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황제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바울을 심문하여 상소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죄를 범한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Q.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권세는 무엇입니까?

Q. 선한 양심과 준법정신은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라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인가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창조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12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뻗은 막대기

오늘 당신 앞에서(1~11절)

바울은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를 잘 알고 있던 아그립바 왕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자라며 받았던 교육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전에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서서(12~23절)

바울은 자신의 화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죄 사함과 믿음이었습니다(18절). 바울은 자신의 말을 맺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실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23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문화를 복음 전파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 둘씩 짝을 지어 전도의 주된 메시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참되고 온전한 말

²⁴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²⁵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²⁶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²⁷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²⁸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¹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²⁹바울이 이르되 ²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³⁰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³¹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³²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1) 또는 짧은 시간에 2) 또는 시간이 짧으나 기나

나와 같이 되기를(24~29절)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헬라 철학의 학문 속에서 자란 베스도는 자신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빈정대며 조롱하는 아그립바 왕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더욱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다”(2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30~32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방면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따른 바울의 뜻은 석방에 있지 않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Q.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 3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①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②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③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④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⑤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⑥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⑦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시에서 가깝더라

⑧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⑨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⑩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⑪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⑫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⑬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⑭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⑮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⑯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⑰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⑱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⑳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㉑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1~8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뱃길은 험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바울의 호송을 맡게 하였고, 바울의 동료인 누가(2절 '우리' 가)와 아리스다고(골 4:10 몬 1:24)를 그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시돈에서는 율리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대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세심한 돌보심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주님은 바람과 해류와 항만에 드나드는 모든 배들의 운항을 주장하셔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9~20절)

지중해는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일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항해를 하려면 9월 중순 이후부터는 파선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항해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9절의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초에 해당하는 유대의 속죄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기에 더 이상의 행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항해를 강행하였고, 결국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Q.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Q.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¹²¹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¹²²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¹²³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¹²⁴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¹²⁵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¹²⁶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¹²⁷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¹²⁸물을 채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¹²⁹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베틀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¹³⁰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¹³¹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¹³²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¹³³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¹³⁴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¹³⁵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¹³⁶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¹³⁷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¹³⁸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¹³⁹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¹⁴⁰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¹⁴¹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¹⁴²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¹⁴³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¹⁴⁴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21~26절)

주님은 바울의 곁에서 늘 함께하셨습니다(23절). 그래서 바울은 풍랑으로 표류하는 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었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로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던 분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었습니다(25절). 백부장을 비롯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항해 경험과 항해술을 의지할 때, 바울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27~44절)

바울의 예언대로 표류하던 배는 점점 육지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도 이제는 바울의 말이라면 모두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에 따라 구조선도 끊어 버리고, 식량을 바다에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이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에도 이를 제지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던 276명 모두를 살려 주셨습니다.

Q. 전문가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데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Q.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㉑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㉒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㉓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㉔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㉕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㉖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㉗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㉘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㉙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㉚디오스구로라 ㉛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㉜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㉝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㉞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㉟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2) 헬 세 여관이라는 뜻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1~6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피던 바울이 독사에게 손을 물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가 그를 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그들은 되레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약속하신 표적이었습니다(막 16:17~1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접하여(7~15절)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고,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바울을 통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겨울을 지내고, 석 달 뒤에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배가 보디올에 이르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복음을 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Q.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2월 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신 12:11 왕상 8:29)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은 어떤 위협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 (4절)이라는 거짓말을 마치 주문처럼 되풀이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으로 인해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며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말씀으로

먼저 예레미야 7:1~34을 읽으십시오(모임 시간을 안내하여 1~15절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1. 3절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5~7절, 렘 18:11; 25:5; 26:13 마 5:23~24 막 12:30~31 참조)

신앙생활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거

본문 예레미야 7:1~34 찬송가 322장, 321장

짓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도(9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10절). 이처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2.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여호와와의 성전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11절)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하는 자들을 내 쫓으시며 □ 바꾸는 자들의 □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를 둘러 앉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의 □□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막 11:15~17).

3. 하나님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과도 같았던 한 장소를 지목하시며 그곳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12~15절)

□□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을 쳤던 장소입니다(수 18:1). □□□이 어릴 적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삼상 1:24; 3:21) 이곳에는 여호와와 □□□가 있었습니다(삼상 4:4).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를 빼앗긴 이후에 이곳은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게 수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월 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6~20절)

5.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21~26절)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을 원하십니다(삼상 15:22 참조). 언약궤나 성막, 제사 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강퍅해졌습니다(25~26절).

6.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린 유다 백성은 상상을 초월한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대하 28:3, 33:6 렘 19:5 레 20:1~5 참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29~34절)

7.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23절).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맺어진)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5, 8).

■ 세상으로

1.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2.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처럼 굳어져 종교 의식으로만 행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2월 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예레미야 11장은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과 이 언약을 배역한 이스라엘과 그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꾸준히 섬김으로 결국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인데,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언약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언제나 불성실했습니다. 본문 4절에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 □□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를 □□하고 나의 모든 □□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이 되리라"

■ 말씀으로

먼저 예레미야 11:1~23을 읽으십시오.

1.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 보십시오 (7~8절).

본문 예레미야 11:1~23 찬송가 95장, 94장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 하며 끊임없이 □□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아니하며 □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의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하라 □□하였어도 그들이 □하지 아니한 이 □□의 모든 □□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 → □□하라는 명령 → 백성이 □를 기울이지도 않음 → 백성의 □□이 완악해짐 → 악한 마음대로 행함 → 하나님이 □□의 모든 □□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

2.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과 그들의 선조 사이에 죄악의 연속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연속성은 무엇입니까?(9~13절)

3.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유다 백성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15~17절과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하인이 두 □□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하고 저를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과 □□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너희가 □의 잔과 □□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의 식탁과 □□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전 10:21).

2월 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현상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딤후 3:1~7)

5.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18~21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언약을 위반한 사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 □ □ □ (렘 1:1)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죽이겠다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19절). 이와 같은 표현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는 장차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6.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아나돗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20~21절)

7.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눅 23:34 _____

8.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재앙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로도, 그들의 성전 예배로도 이 재앙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는 길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날 성경으로, 설교로, 혹은 기도 중에,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9~10).

■ 세상으로

1.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십니까?
2. 찬송가 94장의 가사의 고백대로 살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한 바울은(행 21:36~38) 배편으로 두로에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 함께 머물렀는데, 그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4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기 때문입니다(행 20:23). 그러나 바울은 정한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제자들은 성문 밖까지 그를 전송하러 나가서 함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사명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르시되 □□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 14:36).

■ 말씀으로

먼저 사도행전 21:1~26을 읽으십시오.

1.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에 대한 예고는 가는 곳마다 이어졌습니다. 그가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에 넘겨진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까지 보이며 예언했습니다(10~11절).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가족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했습니다(12절).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13절)

2. 확고부동한 바울의 마음을 확인한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가족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14절)

3.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바울이 그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18~19절)

4.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로 인해 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20~22절)

원시 초대교회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방 선교에 대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에 네로 황제가 등극(주후 54년)한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민족주의가 다시 대두되어 빠르게 성장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모든 비유대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열심당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초대교회의 수적 증가와 함께 기독교의 유대주의적 요소가 교회 안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등장과 그의 선교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급기야 바울을 율법 파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5. 바울이 받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야고보는 바울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23~26절)

바울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21절). 그가 주장했던 것은 신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금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과 같이 된 것은 □□□들을 얻고자 함이요 □□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 9:20).

바울은 모든 오해를 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네 명의 유대인과 함께 율법에 따라 정결예식을 행했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제물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6. 양심으로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체가 오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금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즉 너희의 □□가 믿음이 □□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식 있는 네가 □□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이 □□ 자들의 □□이 담력을 얻어 □□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전 8:9~10).

7.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듯이(눅 18:31~34), 사도 바울도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는 곳곳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을 믿는 □□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 세상으로

1. 꼭 가야 할 길임을 알면서도 혹시 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2.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올 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2월 2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을 맡은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어, 유대의 총독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가리켜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도 확인했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도 허락했지만 그의 석방은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벨릭스와 그의 세 번째 아내, 즉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서 16세 때에 전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한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와 □□와 장차 오는 □□’(25절)에 대해 강론하자, 벨릭스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 대화를 중단하고 자신의 결정을 회피하는 화술을 구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보다는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행 24:26).

■ 말씀으로

먼저 사도행전 24:22~25:12을 읽으십시오.

1.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은 누구입니까?(행 24:27)

잔인한 폭군이었던 벨릭스가 실책으로 총독에서 물러난 것을 알고 있었던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유대의 지도층과 각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베스도는 새 총독으로서 가능한 한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고, 유대의 지도층은 이를 이용하여 바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바울은 이에 항의했습니다.

2. 베스도의 법정에서 바울에게 드러난 혐의는 무엇입니까?(행 25:7~8)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중대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 증거도 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2월 2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3.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베스도에게 어떤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행 25:10~11)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내용이 모두 맞지 않고, 자신의 무죄가 드러난 만큼 총독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이 이러한 상황 중에도 법을 위반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려 하니,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률상 수단을 사용하여 황제의 법정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까?

행 23:11 _____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2년이나 가이사라 감옥에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복음의 일꾼을 이와 같은 상황에 두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로마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처한 고달픈 형편 또한 주님의 새 일을 위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5.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와 □□의 풍성함이며, 그의 □□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은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했고(막 8:32),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워했습니다(막 9:31~32).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2.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리 만나 2015년 2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김규식 이원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